

# “천원이면 일주일간 배불러요”

## 정토회 수행일환으로 ‘빈곤퇴치 캠페인 행사’ 김여진·배종욱씨 동참

“단돈 1000원이면 굶는 아이들의 1주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65일 굶는 이들이 배비는 서울 강남역. TV브라운관에서 보던 이들이 모금활동을 펼치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일과 수행의 공동체인 정토회 길벗(지도법사 보수)은 10월 17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연극, 영화, 방송,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과 함께 거리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거리모금은 겉으로 볼 때는 여타 모금행사와 다를 바 없었지만 보아주시길 일회성 행사가 아닌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탤런트 배종욱, 김여진과 노회경 작가를 비롯한 37명의 길벗 회원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나눔을 실천



정토회 길벗 회원인 김여진(왼쪽) 배종욱씨가 10월 17일 강남역에서 ‘빈곤퇴치 캠페인 거리모금행사’를 하고 있다.

전하며 지하철 각 출구에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정토회의 ‘빈곤퇴치 캠페인 거리모금행사’는 9월 26일~10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을 집중수행의 일환이다. 모금활동 중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의 마음상태를 관찰하는 동중(動中)수행이다. 회원들은 집중수행 기간에는 매일 수행일지를 쓰고 회원과 법사님으로부터 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점검을 받는다. 토요일에는 500배 절 수행, 수행법회, 열린법회 등을 통해 정진한다.

회원들은 특히 거리모금 등 이웃을 위한 보현행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수행의 참 의미를 스스로 깨우쳐도록 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명상문 “네”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해봅시다”라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 속 수행도 하고 있다. 길벗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인다’는 목표에 따라 봄, 가을 두 차례 집중정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50여 분간 진행된 행사를 통해 80여 만원이 모금됐다. 길거리 모금과 후원활동으로 모아진 돈은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를 통해 필리핀, 인도 등 학교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 범불교 녹색체험 사찰 농어촌 연계

범불교농어촌들기운동본부(사무국장 최덕주, 이하 범불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녹색체험’이 화제다. 사찰과 농어촌이 연계된 체험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녹색체험’은 8월 1일 충북괴산군 비학봉 마을에서 옥수수체험 행사와 각연사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17일에는 사과와 부석사로 유명한 경북 영주를 방문했다.

최덕주 사무국장은 “유명사찰들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며 “불자들이 사찰순례와 농어촌 체험을 하면서 농산물을 구매해 농어촌에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이정진(53)씨는 “사찰순례와 소수서원, 선비촌 견학도 하고 농산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범불농의 다음 체험지는 깻벌체험과 텃밭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해안으로, 오는 11월 7일 떠날 예정이다. (02)3270-3351

박선주 기자

## 서울광장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명원문화재단 등 22일 차문화축제 열어



오른쪽부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의정 이사장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차가 녹차만 있는 게 아니네요. 다양한 재료를 응용해서 만든 차에 대한 정보도 얻고, 차 한잔의 여유를 주시니 너무 좋은데요.”

한국 차(茶)를 맛본 이들의 감탄사가 쏟아져 나온다. ‘다이나믹 코리아’의 상징 서울시청 시민광장에서 차(茶)와 함께 가을 풍류를 만끽하는 차의 향연이 펼쳐졌다.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등은 지난해에 이어 10월 22일 ‘서울 세계 차(茶)문화 축제’를 마련하고 한국 전통 차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장을 열었다.

이번 차문화 축제에는 명원문화재단, 외국인 학교, 지역 복지관, 월정사, 불광사, 대흥사, 봉은사 등에서 나온 차인과 다례반 학생들이 140여 차석을 마련하고 한국차를 소개했다.

축제에서는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온 직장인들, 서울 관광 중인 외국인 등 국

적과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지난해 시민들은 준비된 일차, 황차, 홍차, 녹차, 말차, 인삼차, 연꽃차, 생강발효차 등 수십 종류의 차의 맛·향·색을 맛보며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었다. 하동에서 올라온 배대민(명원문화재단·37)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차를 선보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축제에는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보선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초의차문화연구원 여연 스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주요영 국회 특임장관, 조유행 하동군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제를 마친 후 김의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차는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자동차의 차(車)소리를 듣고도 차(茶)라고 생각할 정도다.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차차차’라며 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상언 기자

## 다문화가정 돕기 여성 종교인 나서

### KCRP 여성위, 16일 ‘다문화사회와 종교여성의 역할’ 세미나

과도기에 처한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여성 종교인 80명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 최근덕, 이하 KCRP) 여성위원회는 10월 16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다문화사회와 종교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정은 만복지원(萬福之源)이라고 할만큼 모든 복은 가정에서 비롯된다”며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하는 화두는 더없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미숙 여성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타문화 수용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많은 폐단을 여성 종교인들이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연구소 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여성위원 80명이 참여한 ‘다문화사회와 종교여성의 역할’ 세미나가 10월 16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열렸다.

장은 ‘종교연합체에서의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 민간 등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적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그들과 우리의 경계를 무마시키는 작업이말로 종교인의 참다운 역할이다”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각 종단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종단별로 하고 있는 활동내용 발표와 △내국인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여성 종교인들이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토의했다.

한편, KCRP는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5분 원광대학교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에서 ‘이웃종교 이해 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그리스도교 하나인 교회, 여러 다른 교파들’(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불교와 그리스도교 부처님 모습, 예수님 모습’(정양모 서강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슬람교 순니와 시아’(이슬람학, 서강대 종교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도), ‘불교 수행과 의례’(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02)736-2250

박선주 기자

## 평화 비폭력, 명상으로 말하다

### 세계평화행진 19일 서울광장서



10월 19일 서울광장에서 모든 존재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대중명상이 펼쳐졌다.

서울시청광장에서 대중 명상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행진 한국위원회’(공동대표 수경, 이하 세계평화행진) 주최로 10월 19일 서울 광장에서 ‘평화, 느림에 빠지다-화해상생을 위한 자비명상과 자비춤’ 행사가 열렸다.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행진(The World March for Peace and

Nonviolence)’은 세계 비폭력의 날인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뉴질랜드에서 릴레이로 이르기까지 100개 나라, 16만km를 순회하는 전 지구적인 행사이다.

세계행진은 자발적·창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평화통일 행사, 종교계의 참회와 평화선언, 워크숍과 대화마당이 진행됐다.

박선주 기자

社告

###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서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해인스님(제주 약선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지켜갑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과 위드쌍용이 불교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보험 업무 지정협약을 맺었습니다. 위드쌍용은 천만 불자와 함께 우리 문화재 보호에 앞장섭니다.

위드쌍용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보험료, 최고의 보상 컨설팅, 보험료! 비교만 해도 절감 됩니다. 온·오프라인 무료 비교 견적 제공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1 한국수입업협회 4층 ☎ : (02) 3483-0775 · 자동차 : (02) 3483-0743 · 장기 : 1588-0978 Fax : (02)3483-0788 02) 6280-0978 제휴 Site : www.FC7.kr